

경의선 유희부지 가좌역 ~ DMC역 공원화 추진 청원 심사 보고서

2013. 12.2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청원인 : 최영섭(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참누리A 107-1902호)
외 2,407명
- 나. 소개의원 : 오진아 의원
- 다. 접수일자 : 2013. 11.22.
- 라. 회부일자 : 2013. 11.26.
- 마. 상정일자 :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(2013. 12.2.)
상정, 심사, 채택

2. 청원요지

-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화 사업에서 제외된 가좌역 ~ DMC역 구간은 그 동안 철도부지로 자동차운전학원, 차고지 및 나대지로 방치되어 교통혼잡 유발 및 소음 진동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던 지역으로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 지역에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토부에서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며, 당초의 계획대로 마포구가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긴밀한 협조로 구의회에서도 힘을 모아 공원화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.

3. 청원 소개의원 요지(소개의원 : 오진아 의원)

-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화 사업에서 제외된 가좌역~DMC역 구간에 주민들의 사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국토부에서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구간을 공원으로 조성해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함.

4. 검토보고 (김은모 전문위원)

- 본 청원의 소재지는 마포구와 서대문구가 인접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화 사업에서 제외된 철도부지 가좌역 ~ DMC역 부근으로 인근에 12개 단지 7,422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최근 MBC, SBS 등 방송국 등이 입주하여 명실상부 서울 서북권 부도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임.
- 이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철도부지가 자동차운전학원, 차고지 및 나대지로 방치되어 교통 혼잡 유발 및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어 오면서도, 민선5기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사업 약속만 믿고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잘 참으며 살아 왔음.
- 그 동안 마포구에서는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13년 2월 토지소유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공단과 협약(MOU각서)체결 직전까지 공원화사업이 진행되는 듯 하였으나, 이 지역에 오랫동안 영업을 해오던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민원으로 공원화 사업이 무산되었음.
- 더 나아가서, 2013. 8월 국토부에서 가좌지구에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지역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이 지역 공원화 사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.
- 따라서, 마포구에서는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긴밀한 업무협조로 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가좌역 ~ DMC역 구간의 공원화가 추진될 수

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며 구의회에서도 힘을 모아 조속히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을 하게 된 것임.

- 검토의견으로는 가좌지구 경의선 철도부지 지상부 공원화사업은 그 동안 이 지역주민들이 철도로 인한 각종 소음과 분진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이를 견디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쾌적한 생활환경속에서 살 수 있다는 미래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며, 민선5기 구청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사업은 40만 구민과의 약속으로 반드시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.

또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 건설계획은 가좌지구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경의선 공원화 계획과 서로 배치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전에 이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며, 마포구·서울시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토부에서는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적극 수렴하여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사업이 중간에서 허리가 잘린 미완성의 공원이 아니라 가좌역 ~ DMC역 까지 계속 연결하여 완성된 경의선 지상부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함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: 의견서 따로붙임

[불 임]

경의선 유희부지 가좌역 ~ DMC역 공원화 추진 청원에 대한 의견서

□ 청 원 명 : 경의선 유희부지 가좌역 ~ DMC역 공원화 추진 청원

□ 처리해야 할 기관 : 마포구

-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

□ 채택의견

- 본 청원의 대상지역인 가좌역 ~ DMC역 구간은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사업 구간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으로, 국토교통부에서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한 행복주택지구 지정을 전면 취소할 것.
-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는 중간 중간에 끊기지 않고 연결하여 진정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경의선 가좌역 ~ DMC역 구간을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사업 대상지에 포함하여 사업 추진을 할 것.
- 특히 이 지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유지인 철도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임차 중인 자동차학원이 이전을 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는 바, 소유자인 국토교통부, 사용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시 그리고 소재지가 있는 마포구 등 유관기관은 상호 협조와 양보 등 타협으로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할 것.
- 따라서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사업 관련부서에서는 본 청원이 제기된 배경과 근본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대책 수립은 물론

관련기관(국회, 국토교통부, 서울시의회, 서울시, 한국철도시설공단 등)에 본 청원 의견서를 보내어 경의선 가좌역 ~ DMC역 구간이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

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함.

청원요지서

| | | | |
|-------|--|-------|-------------|
| 접수년월일 | 2013. 11. 22 | 접수번호 | 1 |
| 청원인 | 최영섭 외 2,407명 (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참누리APT 107-1902) | | |
| 소개의원 | 오진아 의원 | 소관위원회 | 복지도시 위원회 |
| 건명 | 경의선 유희부지 가좌역 ~ DMC역 공원화 추진 청원 | | |

<요 지>

- 서울특별시의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화 사업에서 제외된 가좌역 ~ DMC역 구간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반대하며, 이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청원함.